

권승희 판소리 LAB

전통예술 | 소 | 전

2.14(목) 19:40 | 30분
Tank6 강의실

#권승희판소리프로젝트
#여성소리꾼 #연대 #존중
#인정 #자유 #페미니즘

판 X 소리 X 여성

<판 x 소리 x 여성>은 여성 소리꾼의 억압을 주제로 한다. '도제식 교육과 전통예술의 위계질서, 동시대 판소리가 어떻게 소비되는가?'와 관련한 전시와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1. 문헌 및 자료 연구, 2. 동시대 여성 소리꾼들이 느끼는 억압에 관한 설문과 인터뷰, 3. 전시와 퍼포먼스 콘텐츠 창작의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창작실험에서는 동시대 여성 소리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 영상, 여성 소리꾼이 느끼는 억압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필름이 전시되며,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목소리 & 사운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극단 적

연극 | 소

2.16(토) 13:00 | 20분
Tank2

#난민 #국경 #탈북 #북중국경
#연변 #두만강

국경의 아이들

'북중 국경'을 연극적 성찰의 공간으로:

북중 국경은 오랜 역사동안 한반도의 국경이었다. 현재 그 곳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치적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가 분단되고 남한의 국경이 휴전선으로 막히면서, 전통적인 국경이었던 곳이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국경을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억압과 민주주의, 정치적·문화적 차별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연극적 공간에 펼쳐 놓음으로써 관객이 국경이라는 공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글과 무대

연극 | 소

2.16(토) 19:30 | 50분
Tank6 원형회의실

#도큐멘터리씨어터 #재앙
#생존자 #구술사 #원자력
#인간과 자연

체르노빌의 목소리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동명 '목소리 소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작품이다. 원작이 담고 있는 인간과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맹신과 한계,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온 슬픔과 재앙에 주목했다. 단순히 원작을 각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르노빌 원전 시대와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벨라루스를 직접 방문해 원자력발전소와 인간이 사라진 마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소련과 벨라루스, 구술사 등에 대해 공부하며, 생생하고 구체적인 자료들로 새롭게 도큐멘터리 씨어터를 구성했다. 작품에는 단 한명의 배우가 등장하지만 체르노빌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영상과 음악으로 함께 한다. 그 곳의 재앙과 고통이 그들의 것만이 아닌 지금, 이곳, 우리들의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웃프게' 느껴보길 바란다.

김정아 [극단 동용연극연구실]

연극 | 소 | 판

2.15(금) 14:00 | 120분
2.16(토) 16:00
2.16(토) 19:30
Tank2

#기본소득 #공유재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고용노동절벽
#자본주의 #복지

시민참여연극 [기본소득실험]

자본주의에서 경제는 언제나 자본의 논리대로 흘러간다. 그 결과는 자본이 바닥난 채 파산한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본소득정책을 적용한 게임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가 지향하는 목표는 더 이상 파산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김지선

다원예술 | 피 | 판

2.14(목) 18:00 | 45분
Tank6 참의림

#관념 #플레이어 #나

점의시간(가제)

<점의 시간(가제)>는 생각을 놓는 공간으로 게임 맵을 설정했다.

비디오 게임이라는 매체가 가진 스토리텔링의 독특한 감각을 이용해 생각으로 빚어진 만신전(모든 신을 위한 신전)을 경험하며, 관념 세계 속 '나'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실체감을 느끼는 감각과 사유 그 자체에 대해 재고한다.

김현진 [김지선/WHATSUB]

연극 | 소 | 판

2.15(금) 17:00 | 60분
Tank1

#자막 #WHATSUB
#동시대연극 #연어

본 자막은 공연이 제공됩니다.

<본 자막은 공연이 제공됩니다.>는 공연에서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 '자막'을 연극의 중요 요소로 상징하고, 활용성과 의미, 미학적 활용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공연이다. 이 작업의 주체는 자막이다.

동시대 연극에서 의미 전달의 역할을 위해 제한적, 한정적, 선택적 요소로 사용하는 자막이 공연의 주체가 되어, 발화된 언어와 문자의 관계, 청각과 시각 등 감각을 매개하는 이미지로서의 텍스트, 정보의 전달과 과잉, 무대 디자인으로서의 영상과의 경계의 문제 등을 이야기 한다. 관객은 배우가 아닌 '자막'과 상호작용하며, 자막과 공연, 공연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며 본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박한희 [Non Gothic Body]

다원예술 | **피** **관**
2.14(목) 14:00 | 60분
Tank6 창의랩

#엠페도클라스4원소 #음악오행
5원소 #그리스희곡 #엘렉트라
#Non_gothic_body

엘렉트라 실험적 안무창작을 위한 메소드개발 과정공유회

그리스 희곡 '엘렉트라'에 나타나는 인물의 극대화 된 감정 표현, 심리묘사의 방법과 작품을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안무 창작을 위한 메소드를 연구한다.

이번 연구는 동양철학 음악오행의 물성(水, 火, 土, 金, 木)과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Empedocles)의 4원소(Air, Earth, Fire, Water) 물성에 대해 비교하고 융합한다. '엘렉트라' 작품 속 인물의 심리를 물성으로 표현하고 이를 장면에 대입하여 움직임을 발견한다. 이에 더해 한국적 소리법과 부채춤의 현대적 적용을 실험하면서 장면을 창작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한다.

배서영 [창작탐-래빗 :Rap it]

뮤지컬 | **소** **관**
2.15(금) 16:00 | 30분
Tank6 창의랩

#토끼전 #RAP #감을관계
#뮤지컬간 #랩뮤지컬
#힙합뮤지컬

힙합 뮤지컬 <간>

힙합 뮤지컬 <간(肝)>은 밤마다 아근하고 또 몸을 일으켜 출근하는 이 사회의 직장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이 직장 내의 갑 - 을 관계가 토끼전(별주부전)의 용왕, 토끼, 자라의 관계와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랩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담아보고자 한다.

서상혁 [Whose Salon]

연극 | **피** **진** **관**
피칭, 관객과의대화
2.16(토) 15:00 | 120분
Tank6 원형회의실
전시
2.16(토) 13:00-18:00
Tank6 카페

#이머시브시어터 #Game
#융복합 #휴즈살롱
#로미오와줄리엣 #Choice

이머시브 시어터 X 게임 '융복합 창작리서치'- The Choice : Romeo&Juliet

관객의 선택적 경험을 추구하는 '이머시브 시어터'와 관객의 적극적인 관찰에 의한 관찰을 촉진하는 '게임',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융복합 공연 창작 프로세스를 탐구한다.

해당 목표를 통해 관객의 주체적 작품 관람에 따른 기존 서사의 해체와 주체적 재구성에 따른 작품의 입체적 발견을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나 장르 간 특성에 따른 확장과 교차 가능성을 사운드디자인, 음악, 무대디자인, 게임구성/운용, 각색/구성, 연출/구성/기획의 관점에서 상호 연구한 그 간의 리서치를 공유한다.

서은지

뮤지컬 | **피**
2.16(토) 18:00 | 30분
Tank6 창의랩

#살인 #중독 #1인창작뮤지컬

뮤지컬 <스테이크>

뮤지컬 <스테이크>는 살인에 중독된 앨런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로 1인의 창작자가 극작, 작사, 작곡 전체를 창작한 1인 창작 뮤지컬이다.

주인공 앨런은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다. 그는 작은 바람에도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데, 그런 그가 자신의 아내 클레이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칼로 베어 살인을 저지른 뒤 살인에 중독된다.

이 살인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앨런은 끝은 어떻게 될까?

아이

연극 | **소** **관**
2.14(목) 14:00 | 80분
Tank2

#골렘 #아이 #윤성호연출
#인공지능 #뇌과학

골렘 프로젝트

<골렘 프로젝트>는 지능과 뇌과학이란 소재를 기반으로 '우리의 뇌가 모두 컴퓨터로 프로그램화 된다면?'이란 질문을 희곡의 주요 출발점으로 삼았다. 희곡의 배경은 인간의 뇌 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인공지능에 담을 수 있게 된 가상의 미래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등장인물들의 오해와 갈등 속에 과연 우리의 뇌정보가 프로그램화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그것을 정말 우리의 본모습을 지니고 있는 진실로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복제된 모조품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등의 테마를 담아내었다. 희곡은 유태인 신화인 인조인간 '골렘' 이야기, 컴퓨터 개발자 앨런 튜링의 인공지능 이론, 그 반대 입장으로 제시된 심리철학자 존 설의 '중국어방' 이론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딱딱한 이론 전달의 방식이 아닌 드라마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관객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악단광칠

전통예술 | **소**
2.14(목) 19:00 | 30분
Tank2

#실험 #탐색 #성장

황해도 굿과 일렉트로닉의 결합

대중화라는 화두는 악단광칠의 음악활동 전략이자, 중요한 방향성이다.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소통해야 비로소 아름다워진다고 여긴다. 그간 국악기만으로 대중적 사운드를 구현해 내기 위한 실험을 지속해 왔다.

이번 일렉트로닉의 결합은 실험의 새로운 단계가 된다. 새로운 시도와 모색의 결과를 선보이고자 하는 자리다. 경험과 색이 다른 세 명의 일렉트로닉 프로듀서를 만났다. 선보이는 곡들은 악단광칠의 음악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딘

다원예술 | 

2.16(토) 13:00 | 30분
Tank6 창의랩

#사츠 #춤 #직전의시간

부동(不動)의 운동(運動)

〈부동(不動)의 운동(運動)〉은 사츠를 연구한다. 사츠는 덴마크 연극 극단 오딘 컴퍼니(Odin Company)의 유지나오 바르바(Eugenio Barba)에 의해 정리된 개념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움직이기를 결정한 그 상태”를 지칭하며, 한글로는 ‘전-표현’이라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뭉뚱이를 하기 직전 몸을 낮추는 것, 말을 하기 전 숨을 들이마시는 것, 음을 누르기 전 손가락을 긴장시키는 것 모두 사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춤, 연극, 연주 등 인간의 움직임으로 운용되는 모든 공연 예술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부동(不動)의 운동(運動)〉은 사츠를 연구하고 이를 공연의 구성 재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실험하기 위한 목표에서 출발하였고, 렉처 퍼포먼스로 기획되었다. 창작실험활동을 통해 퍼포먼스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이전의 리서치, 자료수집, 사유의 발전, 테스트 등의 프리프로덕션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실험을 통해 1차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공유한다.

온앤오프 무용단

무용 | 

2.15(금) 19:30 | 20분
Tank2

#부드러운움직임 #원래의속도

A warm body “부드러운 몸”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인간의 삶은 조바심하고 있다.

자연의 풍경, 사람 냄새 나는 공간, 그리고 평화롭고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의 원래 속도를 찾아야 한다. 원래 속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 이번 작업은 시작되었다.

느리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반복적이며 물결 같은 움직임과 이미지를 통해 실존에 대한 물음과 몽환적인 사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윤어진 [cirque petit prince]

연극 | 

2.15(금) 14:00, 18:00 | 120분
Tank6 원형회의실

#서커스 #어린왕자

연극 서커스 어린 왕자

연극 〈서커스 어린 왕자〉는 소설 ‘어린 왕자’를 소재로 한 연극이다. 작품은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그들 각자에게 소중한 그 무언가를 일깨워주고자 한다.

이번 작품에서는 연극과 서커스를 함께 혼합하는 장르를 시도하고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공연의 형태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또한 인물의 캐릭터가 잘 드러나도록 소품과 움직임을 활용한 신체 연기 및 연극을 시도한다.

정다슬

무용 | 

2.16(토) 18:00 | 30분
Tank1

#대상화 #공공적몸 #주체성
#국민체조 #해체 #몸 #시선
#중얼중얼 #바라볼때
#실험실 #결집

공공하는 몸 - 프롤로그

〈공공하는 몸 - 프롤로그〉는 우리의 몸 속 깊이 침투해 온 ‘역사적 먼지 투성이’가 개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정시켜왔는지 탐구하는 과정이자 ‘공공하는 몸 3부작’ 중 연작의 기점으로서 나아가 방향을 제시한다.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상화에 관한 리서치를 실행, ‘공공’ 하에 내재된 행위 방식에 익숙해진 몸을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몸을 낮설게 만들기, 고정화 된 관계를 혼동시키기, 흐름을 방해하기를 수행하며, 몸의 주체성을 환기시키고 대상화 된 몸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공연예술 요소를 활용, 과감한 안무 실험을 시도한다. 또한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동시대 우리에게 드리워진 대상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3부작으로의 발전 리서치의 과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창작그룹 노니

다원예술 | 

2.14(목) - 16(토) | 상시
Tank6 에코라운지

#서커스 #연희 #문화비축기지
#에코라운지 #이아기공유 #전시
#도서관 #library #수집 #위험

리서치:서커스_연희

채록된 개인의 기억들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되어 수집된 자료를 그대로 나열·전시한다. 보는 이가 개인의 이야기와 역사를 주도적으로 상상하여 만나는 공유전시의 형태로 창작실험 과정공유를 진행한다.

서커스와 연희의 국내·외 종사자, 그리고 잠재 관객인 비종사자들의 인터뷰를 채록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수많은 상상력이 발동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전시하기보다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과정 그대로를 전시하고자 한다.

최강프로젝트 [Choi x Kang Project]

무용 | 

2.14(목) 14:00 | 20분
Tank1

#쌍 #밸런스

2+

완벽한 ‘쌍’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밸런스)는 어떻게 발생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깨트리고 분리하면 어떻게 기능하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혼자 일 때는 불가능하고 둘이어야만 가능해 지는 지점-두 명의 몸, 두 개의 소리, 글과 디자인을 탐구하여 서로 상호 작용하는 부분을 깨트리고 재배치의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밸런스를 탄생시키는 실험을 한다.

최민호

[터미널]

다원예술 | 소

2.16(토) 13:00 | 40분
Tank6 원형회의실

#광장 #역사 #사람

최지원

[Empty John]

다원예술 | 파

2.14(목) 15:00 | 30분
Tank6 원형회의실

#장소특정공연 #silence
#빈집

출 창작집단

존재

[Exist Dance Project]

무용 | 현

2.16(토) 14:00-17:00 | 15분
Tank1

#무선센서 #터치센서
#공연전시 #문화예술 #무용

대한문 1919-2019: 광장의 역사

그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 온 '광장'. 우리는 그 곳에 가장 평범한 당신(K씨)을 소환합니다.

K씨의 삶과 함께 혼중에 혼중을 거듭하는 다양한 예술장르는 그 자체로 광장과 사람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표현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성찰할 것이다.

Finding Silence

마을로 들어선다. 촉박한 걸음. 좁은 골목을 지나 한 건물 앞에 선다. 또렷한 색과 글씨, 필요한 물건들로 채워졌던 이곳. 선했던 움직임들은 사라지고 없다. 고요하다. 할 일을 잃어버린 이곳은 그야말로 '빈' 집이다. <Finding Silence>는 이러한 빈 집을 탐색하고 숨은 맥락, 은밀한 이야기에 대해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수정되는 대답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곳에서 관객은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을 찾아 나선다.

시각적으로 비어있는 이 공간과 관객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이 프로젝트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객은 공간 안에 숨겨진 단서를 발견하거나 스스로 새로운 언어, 몸짓 등을 첨가하면서 공간의 의미를 확장해나간다. 공간과 공간, 공간과 관객, 관객과 배우, 관객과 관객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들은 결국 수많은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고, 관객은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 <보이책>, <더블린 사람들>, <임 속의 검은 잎>, <Silence> 등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선행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공간적 체험 자체에 의미를 둘 때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심포니 오브 바디(Symphony of Body)

<심포니 오브 바디 (Symphony of Body)>의 핵심 키워드 접촉은 두 개의 개별적인 존재가 서로 표면을 맞닿음으로써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각자의 다름을 인지하고 자신의 존재를 재인식하게 되는 행위다. 이처럼 지금 시대의 접촉은 사람과 사람 뿐 아니라 모든 물질영역에 확대되어 있으며, 특히 물질영역의 접촉에 따른 반복됨의 일상은 접촉의 재인식에 대한 해석적 행위와의 거리를 멀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신체에 센서를 도입한 무용수 듀엣의 접촉행위를 통하여 화음을 형성하고 음악으로 발전하는 일상의 하모니다.

컬처 컬러

무용단

무용 | 소

2.15(금) 19:00 | 30분
Tank5

#준비하는자세 #양가성
#갈다 #서울탄츠스테이션
#막

시간을 갈다

수목화를 그리기 전에 먼저 먹을 갈아야 한다. 베틀 위로 원을 그리는 동안 미세한 마찰들이 먹을 쥐고 있는 나의 손에 전달된다. 붓에 먹물을 묻혀 새하얀 종이 위에 하나의 점을 찍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먹의 향기는 진해지고 나의 몸은 좀 더 정갈해진다. 마음을 갈고 닦다. 몸을 갈고 닦다. 그릇을 갈고 닦다. 실력을 갈고 닦다... 무엇을 깎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고 정갈히 하며 빛을 낸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것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붓으로 한지 위에 첫 획을 긋는 마음은 공간을 몸으로 그리는 첫 움직임에 대한 느낌과 비슷할 것이다. 매우 빠른 속도의 기술발달로 아무런 부담 없이 수백 번의 클릭만으로 붙이고, 자르고, 삭제, 복사, 복구가능으로 만들어지는 다른 예술의 작업방식들과는 다를 것이다. 일단은 빨리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먹을 가는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불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 모두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시간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닐까. 이 작품은 공간을 그리는 몸을 정갈하게 갈고 준비하며 풀이킬 수 없는 첫 획, 그리고 시간을 긋는 과정을 담는다. 물과 먹, 투명함과 어두움, 가벼움과 무거움, 착고 큼, 비어있음과 꽉 참 등 양가적인 요소들 간의 조화를 안무적으로 발전시킨다. 각각의 요소들은 스스로를 갈아내며 정갈해지고 서로 마찰, 충돌하는 시간을 거쳐 조화를 이루며 공간에 향기를 풍는다.

코끼리들이 웃는다

다원예술 | 파

2.14(목) 20:10 | 30분
Tank6 원형회의실

#어둠 #관객참여형공연
#새로운관객 #새로운접근방법

성스러운 수다

<성스러운 수다>는 청소년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 참여형 공연형식으로 만들어보고자 시작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관객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길을 헤매고 반복적으로 수정되었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도들이 어떤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프로젝트

날다

무용 | 소

2.14(목) 19:30 | 30분
Tank1

#공중무용 #공중퍼포먼스
#공중이미지 #공중움직임연출
#크레인공연 #공중공연연출

공중에서의 오브제와 신체 조화

'프로젝트 날다'는 공중에서의 오브제와 신체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그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방법론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오브제 구조와 질감, 운동성에 따라 외출에 매달린 퍼포머들은 신체 균형과 안무를 연출한다. 중력과 줄의 장력, 신체의 힘, 오브제 구조와 운동성 등을 사용한 공중 공간에서의 움직임 창작은 앞으로 더 꾸준히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크레인에 매달린 대형 오브제에서의 단순한 이미지가 창조되어 왔던 시간을 이겨내고, 이번 쇼케이스는 퍼포머들이 중심이 되어 공중에서의 예술적 표현을 완성시켜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Company J

다원예술 | 

2.16(토) 14:00 | 30분
Tank6 감의실

#lereve_studio
#artist_companyj
#르레브스튜디오
#안무가정현진

Company J 2019 신작 창작 워크숍

Company J의 신작 '마지막 맥주를 따지 말았어야 해'의 창작 워크숍을 진행한다. 움직임 프레이즈를 연구하고, 미술적 요소로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고민한다. 또한 음악적 이해도를 높이고 장면 장면을 부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실험한다.

이 작품은 일상적인 우리의 이야기를 껍범으로서 누구나 공감할만한 문제들을 리얼하게 전하고자 한다. 사전 리서치, 움직임 워크숍 등 단계별 제작 단계를 거쳐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겸비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Made the world over Theatre

[메이드 더 월드 오버 씨어터]

무용 |  

전시
2.15(금) 18:30 | 60분
Tank4
쇼케이스
2.15(금) 19:30 | 50분
Tank4

#인형극 #탈인형극
#노는인형Doll끼

인형극의 새로운 형식과 대본 찾기 실험 2019 人+Form+극 = ?...ing

연극 연출 & 배우 김정주와 인형제작 & 배우 박은화 중심으로 시작된 이번 실험 프로젝트는 고착화 된 어제의 인형극에서 벗어나 오늘의 인형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인형극 실험이다.

관객에게는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상상력을 끌어낸다.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인형만의 새로운 언어를 찾는 작업이며 중국에는 무대 인형의 본래의 정체성, 순수성, 존재론의 물음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어진다.

인형을 중심으로 타장르와의 협업과 극의 경계를 확장하여 동시대적 이면서 탈장르를 표방하는 대안적 실험에 관객을 초대한다.

과 → 정
과

공

우

^
v

02
14^{thu}
-
16^{sat}